

정 자본주의의 현상을 그는 이미 450여 년 전에 인간의 부패성을 통하여 예측했는지도 모르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몇 가지 경제사상사적인 의의 외에도 사회사상사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가 다시 취급되어야 할 줄 믿는다.

## 의로운 전쟁론

이 일 호

### 1. 서론

점증하고 있는 핵 전쟁의 위험에 기독교신자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지구 역사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가?

핵 전쟁은 새로운 것이다. 그러나 전쟁은 역사만큼이나 오랜 것이다. 수세기에 걸쳐, 기독교신자는 두 가지 큰 방법으로 전쟁의 악에 대해 반응해 왔다. 소수의 기독교신자는 크리스찬이 결코 치명적인 폭력에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믿어 왔다. 다수의 기독교신자는 ‘의로운 전쟁’의 측면에서, 비록 전쟁이 끔찍한 것이긴 하지만 때때로 전쟁이 두 가지 악을 제거한다는 사실을 옹호하는 태도를 취했다. 기독교신자

가 특수한 전쟁이 의로운지 또는 불의한지에 대한 판단을 가능케 하는 조심스런 반응은 많은 세기에 걸쳐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재래식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불일치는 팔목할 만한 한 가지 중요한 발전으로 나타났다. 기독교신자가 두 가지 전통으로부터 핵 전쟁에 있어서는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의로운 전쟁 편에 속한 크리스찬이든지 또는 비폭력 전통편에 속한 크리스찬이든지 핵 전쟁에 대한 평판은 같다.

### (1) 의로운 전쟁 전통

우리는 의로운 전쟁 기준을 핵 전쟁의 문제에 적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의로운 전쟁 전통의 몇 가지 취약점을 고찰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여러 세기에 걸쳐 기독교신자 다수에 의하여 주장되었던 이 접근의 정당성을 나타낼 것이다. 다음으로 기독교신자들이 어떤 조건하에서 전쟁이 정당화되었는지를 결정지어 왔던 기준이 무엇이었던가? 「전쟁과 양심」에서 Edward L. Long은 의로운 전통에 대하여 비상한 명쾌성과 간략한 진술을 제공하고 있다. 전쟁하는 원인과 전쟁에서 사용되었던 방법에 관한 양자에 속한 일곱 가지 기준은 대단히 상식적인 것이다.

### (2) 최후의 수단

갈등에 속한 도덕적이고 의로운 해결에 대한 다른 모든 방법들이 무력에 호소하기 전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질 수 있을 때만 시행되어야 한다. 전쟁은 반드시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그것이 불의한 해결을 용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 (3) 의로운 원인

전쟁은 만일 안정된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또는 파괴의 위협 또는

불의의 폭리에 대항하는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이유로 사용될 때에만 오직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싸우는 목적은 반드시 의로와야 한다. 그리고 심지어 도덕적으로 모호하다고 인정되더라도 적은 확실하게 불의해야 한다.

### (4) 정당한 태도

“전쟁은 정당한 태도로 수행되어야 한다.” 그 목적은 보복이 아니라 정의의 회복이 되어야만 한다. 분노와 복수는 정당한 전쟁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

### (5) 전쟁에 대한 선전 포고

“전쟁은 반드시 합법적 권위에 의하여 명백히 선언되어야 한다.” 시민 각자는 정의의 수호자들로서 스스로의 판단으로 무기를 취해서는 안된다. 전쟁에 대한 공식적 선언은 반드시 무력 충돌에 선행함으로써 적이 불의한 행동과 예방 전쟁 (prevent war)을 포기하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 (6) 승리에 대한 합리적인 가망

“전쟁은 추구하고 있는 정치적 목적들과 도덕성의 합리적인 달성을 약속하는 수단으로써 무력에 의하여 근절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승리에 대한 합리적인 손상이 없다면 한편의 원인이 비록 정당하다 하더라도 싸우는 것은 잘못이다. 이것은 단순히 한 편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 편이 전쟁의 과정에서 파괴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가능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 (7) 비전투원의 제외

“의로운 전쟁 이론은 특별히 비전투원을 위하여, 또한 적의 인구의 어떤 지역들에 대한 선별적 예외를 설정한다.” 비전투원들은 직접적으로 무기의 사용, 조작, 재료에 관련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다. 의로운 전쟁에서 비전투적 행동은 바로 비전투원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시민들이 결코 다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한 군인이 군사적 목표물을 정당하게 파괴하면서 가까이에 있는 비전투원을 죽였다면 그것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적인(소위 이중적 - 효과) 비의도적인 결과이다. 그러나 여기에 균형의 원리가 적용된다.

### (8) 균형

마지막으로 균형의 원리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같이 전쟁의 좋은 결과가 수반되는 무서운 악을 능가할 것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으로 기대되어져야만 한다. 이 원리는 전쟁 중에 전쟁의 모든 계획과 특별한 전술 양자에 적용된다. 예를 들면 만일 비의도적인 합법적 군사 목표의 공격으로 인한 이중적 - 효과가 비전투요원의 살인을 무방한 다면 그 행동은 부도덕하다.

의로운 전쟁 전통에 따르면, 한 특별한 전쟁은 오직 위에 열거한 모든 기준에 부합되어야만 정당화된다. 전쟁에 참여하는 한 편의 원인과 한 편이 전쟁에서 반드시 정당해야만 하는 방법 모두이다. 어거스틴 이후로 대부분의 기독교신자가 받아들였던 이 전통의 조명 안에서, 핵 전쟁의 합법성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답함에 있어서, 우리는 현대 핵 전쟁이 어떻게 수행될 것인지를 직시해야만 한다. 한 가지 주된 질문은 우리가 어느 목표물 위에 폭탄들을 투하할 것인가? 오직 무기 설비 그리고 아마도 산업, 통신 그리고 수송 기능만 목표가 될 것인가? 또한 대도시들을 목표로 겨냥할 것인가? 우리는 핵 무기 사용에 대해서 각기 다양한 무

기의 크기와 수에 근거한 다르게 고안된 목표와 그리고 세 가지 기본적인 시나리오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쌍방이 자신의 핵 무기를 도시를 포함한 중요한 적 목표물 모두에 최대한 쏘아대는 전면핵전쟁(반인구 전면전쟁); ② 쌍방이 단지 약간의 적 도시들을 파괴하는 제한된 인구 전쟁; ③ 쌍방이 오직 군사 설비(와 관련된 것)만을 목표로 하는 제한된 반군사전쟁이다.

어떤 기독교신자들은 위의 세 가지 모두를 정당화될 수 있다고 믿는다. 다른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만 받아들인다. 네 번째 선택의 어떤 제안이 있는데 핵무기 사용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억제를 위하여 우리의 핵 비축(새로운 무기 개발)을 계속 해야만 한다. 우리가 의로운 전쟁 기준을 핵 전쟁에 적용할 때 이러한 네 가지 선택을 분류하는 것은 중요하다.

## 2. 칼빈주의와 의로운 전쟁

칼빈은 공적인 형벌을 위하여 정당한 전쟁도 일어나며 군주들의 무장이 단지 개인이 행하는 악을 재판의 형에 의하여 억제하기 위한 것뿐 아니라 적의를 품고 침략하는 자가 있을 때 자기의 왕국을 전쟁으로써 방위하고자 함이기도 함을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성경도 성경 가운데 있는 많은 증언에 의하여 이와 같은 전쟁이 정당하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sup>1)</sup> 신약 성경에는 전쟁이 합법적인 것이라고 가르치는 어떠한 증언도 범례도 없다고 반문하는 자에게 답변하면서 칼빈의 전쟁을 하는 원인은 옛날 그대로 오늘날도 남아 있고 또 한편 관련이 그 시민을 옹호함을 방해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이 일

1)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Book IV, Chap. 20, par. 12, p. 1500.

에 대한 분명한 해명은 사도들의 문서에서 구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그들의 문서에서 의도하고 있는 바는 정치양식을 규정하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영적 지배가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셨을 때 이 점에 아무런 변경도 가하지 않으신 사실이 신약 성경에는 은근히 언급되어 있다고 대답하면서 만일 기독교적인 규율이 모든 전쟁을 죄로 간주한다면 어거스틴의 말을 빌리면 병사들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물었을 때 오히려 세례 요한으로부터 무기를 버리고 군무로부터 완전히 몸을 빼도록 훈계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나 위협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위해를 가하지 않고 너희들의 급료로 만족하라”는 말을 들었던 것이다(눅 3:14). 그들에게 “자신의 급료로 만족하라”고 요한이 명하였을 때 그는 그들에게 병사 됨을 그만두라고 명한 것이 아니다”<sup>2)</sup> 라고 변증하고 있다. 의로운 전쟁의 개념은 그리스인의 상호대학살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재적 기능을 집약시켰던 올림픽 경기, 지파 동맹 회의(The Amphictyonic councils), 델피의 아폴로의 신탁 등이 여기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갈등 해소를 위한 여러 수단이 실패하고 전쟁이 발생한다면, 전쟁은 평화의 회복이라는 목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sup>3)</sup> 과 전투 요원과 비전투 요원을 구별하려고 하였지만 죄인과 무죄자라는 용어만을 사용하였을 뿐 그들이 전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제시하지는 않았던 플라톤의 견해는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분배하는 것이 정의라고 규정되었다.”<sup>4)</sup> 이 각자의 몫이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정적인 사회에 의해 이해되었을 것이다.

2) Ronald H. Bainton, *Christian Attitudes Toward War and Peace*, 채 수일(역)(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81), p.121-122.

3) Ibid., p.45.

4) Ibid., p.47.

그후에 로마인이 의로운 전쟁론의 개념을 취했을 때 그들은 변화된 상황 때문에 그것을 수정해야 했다. 키케로(Cicero)는 의로운 전쟁론을 정복자를 위한 규약, 즉 제국의 윤리로 변형시키려고 하였다. 그의 사상의 배후에는 로마의 지배력을 당시 알려진 세계의 국경에 까지 확대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는 의로운 전쟁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sup>5)</sup> 맹세에 의해 병역에 복무하지 않는 군인은 법적으로도 병역에 복무할 수 없었다. 이런 규약<sup>6)</sup>은 정복에 대한 혁명의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었다. 키케로가 개인은 죽으나 국가는 영원하다고 말했을 때 그는 국가를 인격화하기까지 했다. 그는 국가가 적대국에게 형식적으로 전쟁 행위를 선언하지 않고서는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런 규정은 옛 로마의 관습에 따른 것이었는데, 로마인의 관습은 페스티알레스(Festivals: 평화의 수립이나 전쟁 선포에 형식적인 책임을, 지난 성직자들의 모임)가 먼저 30일간의 응답 기간을 주면서 최후 통첩을 일러주어야 했다. 만일 만족할 만한 응답이 없을 때에는 일방적으로 전쟁이 제기되었다는 것이다.<sup>7)</sup> 그래서 Bainton 교수는 의로운 전쟁론의 세속적 기원을 주장하여 그것이 드문드문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고<sup>8)</sup> 고대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발견하기 어렵다고 쓰고 있다.<sup>9)</sup>

콘스탄틴 황제 시대를 기점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제국과 교회를 협력자(partners)로 여겼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교도들과 야만인들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로마와 기독교가 연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sup>10)</sup> 그리스도인의 전쟁 윤리는 처음 성 임브

5) Ibid., p.50.

6) 의로운 전쟁 규약은 주로 De officiis I, 34-40, 83; II 27; III; 46, 107에 나타나 있다.

7) Ibid., p.50.

8) Ibid., p.67.

9) Ibid., p.55.

10) Ibid., p.115.

로우스(St. Ambrose)에 의해 형성되었다가<sup>11)</sup> 성 어거스틴(St. Augustine)에 의해서 완성되었다. 암브로우스는 그리스도인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의 정당성을 쉽게 표현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제국의 방어가 곧 신앙의 수호와 일치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암브로우스는 기독교적인 의로운 전쟁론의 두 가지 요소를 제공하였는데 첫째, 전쟁 행위가 정당해야 하며, 둘째, 수도승들과 성직자들은 전쟁 행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sup>12)</sup>

어거스틴은 암브로우스가 개략적으로 서술하였던 입장을 확대시켰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이 지상에서 완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였다.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성에 대한 희망의 좌절은 이 지상에서의 평화에 대한 꿈의 소멸과 상응하는 것이었다. “생명을 위협하는 침략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평화가 인간에게는 결코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sup>13)</sup> 그러나 교회는 그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질서를 지향하는 한 세력이라고 함으로 교황신정론(Papal theocracy)의 이론적 근거를 남기고 말았다.<sup>14)</sup>

어거스틴의 전쟁 규약(the code of war)은 플라톤과 키케로의 규약에 기독교적 요소를 첨가한 것이었다.<sup>15)</sup> 그는 전쟁이 그 목적, 즉 평화의 회복이라는 목적에 관한 한 정당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였다. 어거스틴은 보니파체에게 다음과같이 썼다: “평화가 당신의 희망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전쟁은 필연성에 의해서만 실시되어야 하며,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속박에서 구출하여 평화롭게 살게 한다는 목적에서만 시행되어야 합니다. 평화가 전쟁을 선동하기

11) St. Ambrose의 성직자의 의무에 대하여(On the Duties of the Clergy)라는 논문은 키케로의 의무론(De officiis)을 개작한 것으로 본다.

12) Ibid., pp. 121 - 122.

13) De Civitate Dei, XIX, 28.

14) Bainton, op. cit., p. 125.

15) Ibid., p. 129.

위하여 고려되어서는 안됩니다. 전쟁은 오직 평화를 얻기 위해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도 당신은 평화의 정신을 소중히 간직해야 합니다.” 불의가 피를 흘리지 않고서도 시정된다면 그보다 더 위대한 승리가 어디 있겠는가? “보다 위대한 영광은 인간을 살육하는 것보다 전쟁을 중지시키는 데 있다. 싸우는 사람들은 피를 흘림으로써 평화를 찾고 있는 것이다”<sup>16)</sup>라는 어거스틴의 이론의 특징은 사랑이 전쟁의 동기가 되어야 하며, 정의가 한편에만 있어야 한다는 데 있었다. 의로운 전쟁이 한편에서만 정당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어거스틴은 어떤 의미에서 전쟁은 죄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죄에 대한 치유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인간의 교만을 꾸짖고 겸허하게 하고 분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정신으로 일어난 전쟁이라면 이는 마땅히 정당한 전쟁으로서 허용되어야 한다. 전쟁은 단지 필요악으로써만 수행되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그 수단으로 사람들을 악으로부터 구하고 그들을 평화 안에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만 전쟁이 수행되어야 한다. 평화는 전쟁의 구실로 추구되어서는 안되며 평화를 획득하기 위하여 전쟁이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신의 뜻으로가 아니라 단지 불가피성에 의하여 당신의 대적을 살해하라. 반역하고 저항하는 자에게 폭력이 사용되는 것인 만큼 패배당하고 사로잡힌 자에게 장차 평화가 흔들릴 두려움이 없을 경우에는 특별히 자비를 베푸는 것이 당연하다”<sup>17)</sup>고 그의 편지에 쓰고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전쟁에 대하여 「신학대전」(Summa Theologia)에서 언급한다. 그러나 어거스틴의 의로운 전쟁의 이론에 새롭게 추

16) Epist., 189, 6과 209, 2. Ibid., p. 129에서 재인용.

17) Albert Marine, ed., War and Christian Conscience, 오만규(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2), pp. 13 - 14.

가된 것이 없이 아무런 논평이나 비판을 가하지 않았다. 그는 ‘전쟁은 항상 죄된 것인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한 자신의 대답으로서, 전쟁이 정당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누구의 명에 의하여 전쟁이 수행되는가 하는 것은 주권자에게 있어 권위의 문제이다. 전쟁은 어떤 개인이 선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개인은 상관의 심판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쟁 수단에 호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전시 때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인바 사람들을 집결시키는 것도 개인이 사사로이 할 일이 못된다. 공공의 복리는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위임된 책임이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에게 속한 도시나 국가 또는 지방의 공공안녕을 위하여 항상 마음을 써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3:4의 “그가 공언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라는 사도의 말씀에 따라 당국자들이 공공의 안녕을 내란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칼을 들어 행악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적법한 일인듯이 당국자들이 외란으로부터 공공의 안녕을 수호하는 데에 칼을 사용하는 것도 적법한 일이다. 그리하여 시편 82:4에서는 당국자들에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고 했고 어거스틴도 같은 이유로 “인간 사회의 평화에 이바지하는 자연의 질서에 비추어 볼 때 최고의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는 전쟁을 선포하고 의논할 권력이 있다”(Contra Faustus, XXii. 75)고 하였다.

둘째는 정당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점, 즉 공격을 받는 자들은 그들이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어떤 과오를 저질러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QQ. in Hept., qu. X). 정당한 전쟁이란 한 국가가 그 국가의 신민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비행을 시정하려 하지 않거나 또는 그 국가가 부당하게 강탈한 것을 되돌려 주려 하지 않을 때 이러한 비행에 대한 보복의 형태로 나

타난다. (QQ. in Hept., qu. X)

세째는 교전국들이 선을 발전시키고 악을 멀리 한다는 올바른 의도를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전쟁이 적법한 권위에 의하여, 그리고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선포된다고 할 때도 악한 의도로 말미암아 불법적인 것으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남에게 해를 입히려는 열정, 잔인스러운 복수심, 비평화적이고 냉혹한 정신, 반역적인 열정, 권력에 대한 갈망 이러한 것들은 모두 전쟁에 있어서 당연히 강조되어야 할 것들이다”라는 세 가지 필수요건을 제시하고 있다.<sup>18)</sup>

John Murray는 전쟁이 적어도 소름끼치는 악이지만 전쟁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고 전쟁의 수행은 매우 필요로 하는 절실한 것이기도 하다. 정의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심주어진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마치 역설적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진실된 평화의 축복을 보존하기 위하여 전쟁의 수행은 자주 남아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정당하고 필요한 경우의 전쟁 수행은 한 특별한 시당국, 혹은 국가 내에서 시민적 정의를 위반한 자에게 가해질 공정한 심판 실행과 마찬가지로 일 뿐이다. 그러나 전쟁은 그것이 항상 죄의 결과라는 사실 안에서 소름끼치는 악인 것이다.<sup>19)</sup>

브라운은 “의로운 전쟁” 정당화의 6가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 (1) 전쟁은 합법적 권력체제에 의하여 선언되어야 한다.
- (2) 전쟁은 바른 의도를 가지고 수행되어야 한다.
- (3) 전쟁은 오로지 마지막 수단으로만 취해져야 한다.
- (4) 전쟁은 수단과 목적의 비례 원칙에 근거해서 감행되어야 한다.

18) Ibid., pp. 85 - 87. (Thomas Von Aquinas, S. Theol. II. II. 9, 40, 9.1)

19) John Murray, *God and the War* in Collected Writing of J. Murray, Vol. I, p. 346.

(5) 전쟁은 성공할 수 있는 합리적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6) 전쟁은 절제성 있게 감행되어야 한다.<sup>20)</sup>

### 3. 핵무기와 의로운 전쟁론

핵주의(nuclearism)는 온갖 가능한 수단들을 모두 동원하여 상대편을 멸망시키려는 전쟁 행위의 자기 폭로를 완성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이 핵주의는 20세기의 힘에 대한 기묘한 병이며 전체주의의 한 형태이다.<sup>21)</sup> 인간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생존을 가장 위협하는 요소를 안고 있다.

현대의 대량 파괴 방법은 지나간 시대의 무기들과는 다르다. 새로운 전쟁 도구들은 전투원들과 민간인들 사이에 있는 모든 차이들을 완전히 허물어 버린다. 이 무기들의 목적은 적국의 인구를 대량으로 살해하는 것이다. 이 무기들은 그 진정한 본성에 있어서 맹목적이다.<sup>22)</sup> 새로운 전쟁 무기들은 모든 군사적 윤리에 폐기 처분 명령을 내리고 있다. 어떠한 방식과 어떠한 위협들은 그 방식과 위협을 동반하여 수호하려고 애쓰고 있는 정의 그 자체를 파괴한다. 왜냐하면 위협들은 당사자가 그 위협들을 행사할 결의를 갖추고 있을 때에만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경찰의 한계와 상통한다. 경찰은 범인이 사용하는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나 경찰은 수호하려는 정의의 이름으로 이 한계성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합법적인 방식들의 구속을 저항받으면서 범인보다 더 강해지도록 노력한다. 합법적 방식이란 범인과 무고한 사람 사이의 차이점을 존중하는 방식

20) 고재식, 「사회문제의 기독교 윤리」(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p.146에서 재인용.

21) Robert Jay Lifton & Eric Olson, 「죽음의 윤리」(이 일철(역) (서울: 문계사, 1978) p.141.

22) Marine, op. cit., p.287.

을 말한다. 이 원칙은 국제적인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전쟁에 이용하는 방식이 반도덕적일 때 그 전쟁은 더 어상 정의 수호란 명분을 가질 수가 없다.<sup>23)</sup>

기독교의 전쟁 윤리는 전쟁의 목적이 군사력을 이용하여 적국으로 하여금 부당한 의도를 포기하게 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단계를 받아들이도록 하여 적국과의 정의로운 평화를 이끌어 내려는 가정 위에 기초되어 있다. 마치 경찰의 폭력 사용이 범인을 죽이려 함이 아니고 무장 해제시키는 데 있음과 같다. 근대의 의로운 전쟁 이론은 적의 생존권과 적국이 주권적 국가로 존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전쟁과 사용되는 무기에 대한 규약들은 이 이론과 일치된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무기들은 오직 하나의 목적만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적을 기습하여 전멸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무조건 항복 이외에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는다. 이 새로운 무기들은 우리 모두를 심리적 살인자로 만든다. 재래식 무기는 그 무기 사용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주어졌지만 신무기들은 무차별 대량 살인 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sup>24)</sup>

#### (1) 핵무기

원자탄은 세계 제2차대전 중에 수행된 특별 연구 계획의 한 산물이었다. 처음에는 실제로 원자탄이 제조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 누구도 자신을 가질 수 없었다. 그러나 독일의 과학자들이 이와 같은 종류의 무기를 히틀러의 손에 쥐어 주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정보 때문에 미국 역시 전력을 기울여 제조에 나섰다.

1939년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원자탄 개발을 위한 과학적 연구 계획에 전폭적인 지지를 촉구하며 쓴

23) Ibid., pp.288 - 289.

24) Ibid., p.290.

편지에서 하나의 원자를 가공처리하여 사용함으로써 환상적인 파괴를 만들어 내는 새로운 종류의 무기가 만들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루즈벨트는 그 편지를 간파하였고 즉시 그 무기를 개발하는 일을 시작할 것을 명령했다( The Manhattan Project). 1945년 7월 최초의 원자탄이 뉴 멕시코의 사막에서 실험 성공을 가져왔다. 당시에는 이 무기에 관해 도덕적인 의문을 제기할 여지조차 느끼지 못했다.

1954년 3월 1일 마셜 군도( Marshall Islands)의 비키니( Bikini)에서 실시된 수소 폭탄 실험에서는 예상보다 큰 에너지가 발생했다. 거대한 방사능 구름이 발산하여 150km나 떨어진 곳의 사람들은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으로 생각할 지경이었다.

핵무기의 주요한 특징 세 가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

첫째는, 핵무기의 파괴의 규모이다. 히로시마 원폭은 TNT 20,000 ton이며( 20킬로톤, 1945. 8. 6) 80,000명의 거주민을 죽였다. 1955년 미국은 20,000,000톤( 20메가톤)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것은 2억 인구를 살상시킬 수 있는 위력이다. 지금은 살인 위성, 소립자 광선 무기( Particle beam Weapons), 레이더, 중성자탄이 개발되었다.

20세기 말이 되자 많은 나라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다. 전면 핵전쟁이 일어나면 1천억 명 이상이 죽게 된다. 현재 지구의 인구는 50억 미만에 불과하다.

둘째는, 방사선과 방사능 낙진이다. 방사선은 고도의 충전된 에너지 빛의 생성으로 물질을 투과할 수 있다. 이들 빛은 치명적이다. 핵무기의 폭발은 땅을 뒤엎고 대단한 양의 먼지와 파편을 대기 속으로 날려서 방사능 파편을 만든다.

셋째는, 미사일에 의한 핵무기의 전달이다. 우리가 이 고도의 위력적인 파괴력 앞에서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이 무기의 가공할 만한 위력은 그 존재와 사용이 명백한 비도덕성을 갖는다.<sup>25)</sup>

## (2) 위기에 직면한 의로운 전쟁론

핵무기는 타살적일 뿐만 아니라 자살적이라는 것으로부터 오직 두 가지 가능한 결론들이 이끌어질 수 있다. 첫째는, 핵 전쟁이 없어야만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의로운 전쟁( Just War)이 허용 가능한 것인지에 관한 기독교 윤리의 오랜 물음이 지금은 시대에 뒤진 것이고 핵 전쟁에 관하여는 질문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의로운 전쟁, 즉 방어 전쟁의 개념은 방어가 가능한 존재 내에서만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생존의 어떤 기회가 있어야만 하고 가해진 파손과 방어되어진 선 사이의 어떤 합리적인 관계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의 경우에 공격과 방어가 모두 거의 동등한 힘을 지니 점점 파멸과 동일하게 된다면 그때 이들 특성들은 실패로 돌아가고 의로운 전쟁의 전체적인 개념은 불합리하게 된다.<sup>26)</sup> 원자 병기들은 전쟁의 성격에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스도인들은 핵무기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이 올바른 것인가?

전쟁 연구가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선제 공격의 문제는 핵보유 국가들 사이에서 어느 쪽이든 먼저 공격을 가하는 편이 유리하다는 점이다. 먼저 공격을 가하는 편이 우월한 전략상의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의 승패를 판가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선제 공격의 유혹은 전략적 무기 자체의 취약성과 무기의 관제 및 보복 장치에 있어서 중추 역할을 갖는 커뮤니케이션 망의 파괴에 있다. 결국 핵무기의 취약성 및 운반 체계의 문제점에 파생된 딜레마는 언제나 긴장 상태하에 있는 국가들로 하여금 선제 공격에 순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핵무장국들은 상대방의 의도에 대한 불확실한 증거로써도 전쟁을 발발시킬 위험이 있다. 즉 거짓 정보로

25) Ronald, Kirkcmo, *Between the Eagle & the Dove* (Downers Grove, Inter Varsity Press, 1966), pp.18-19.

26) Hemnt Thielicke, *Theological Ethics*, vol. 2, p.452.



인한 핵전쟁 - 우발 전쟁 (Accidental War)이 가능할 수 있다<sup>27)</sup>는 사실이다.

### (3) 의로운 전쟁론 비판

천주교에서는 정의를 위한 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신학적 전승의 명백한 가르침이라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전수한 전쟁 윤리를 계승하고 있다.<sup>28)</sup> 종래의 전쟁 윤리는 이제 원자 무기의 시대에는 통용되지 않으며 더구나 어떠한 전쟁도 어떠한 군비도 그 자체가 비도덕적이라고 오늘에 와서 자주 주장되고 있다. 비오 12세, 요한 23세, 바오로 6세,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가르침을 따라 아래의 재원칙이 성립된다.

① “평화는 전쟁이 없다는 데서 성립하지 않으며 평화는 적대 세력 간의 평행을 통해서 보존되지 않는다.”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질서, 즉 “항상 보다 완전한 정의를 추구함으로써 인간이 실현해야 할 그 질서”의 결실이다. 동시에 평화는 “정의가 수행하려고 하는 바를 지향하는 사랑의 결실이다.” (사목헌장 78)

② 전쟁을 “국가 간의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효하고 적절 인정하는” 이론은 그리스도교적인 전쟁 윤리에 모순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강국의 위신이나 국민의 명예도 의로운 전쟁의 이유가 아니다. (비오 12세, 1948. 12. 24)

③ 여하한 종류의 부정에 대한 방위도 의로운 전쟁 이유가 아니다. 즉 “부정을 인내하는 것보다도 전쟁에서 수반되는 해악이 비교가 안 될 만큼 크다면 그 부정을 감내하는 것이 사람들의 의무일 것이다.” 특히 현대 전쟁이 초래하는 파괴와 그 결과를 볼 때 영토에 관한 요

27) 구 영록, op. cit., pp. 150 - 151.

28) Joseph Kardinal Höffmer, *Christliche Gesellschaftslehre*, 박영도(역)(왜관: 분도출판사, 1978), p.243.

구 등은 비록 그것이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이젠 의로운 전쟁의 이유로 볼 수 없다. (비오 12세, 1953. 10. 19)

④ “전쟁의 위협이 존속하고 상당하는 방법을 갖춘 당해 국제 권위가 아직 없는 한, 모든 평화적인 타협 방법을 시도해 본 후라면 한 정부에 도덕적으로 허용된 방위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사목헌장 79). “매우 중대하게 공동체에 가해진 부정에 대한 방위의 절대적 필요성은 ‘만일’ 다른 수단으로 이를 지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오늘에도 의로운 전쟁 이유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신적인 평화 질서를 위해 절대로 존중하고 보증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보호하고 방위할 의무가 있는 재보가 있기 때문이다.” 이 재보는 “인간의 공동 생활을 위해서 실로 중요한 것이며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 이 재보를 방위한다는 것은 틀림없이 완전하게 정당한 것이다.” 한 국가가 공격함으로써 이 재보를 훼손하는 것은 “신의 존엄에 대한 일종의 모반”이다. 이와 같은 위협에 직면할 때 “다른 제국민은 자기의 생존과 자기의 귀중한 재보를 수호하려면, ...부득이 자신을 보호해야 할 날을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방위권은 오늘일지라도 어떠한 국가에 대해서든 거부할 수 없다.” (비오 12세, 1948. 12. 24; 1953. 10. 3; 1953. 10. 19)

⑤ 이 재보가 공격받을 경우 인류의 연대성이 무감각한 중립에서 단순한 방관자의 역할을 할 것이 아니다. 위협받고 있는 국민을 원조할 것을 명한다. 최고의 재보가 위협받고 있을 경우에는 단순히 순수한 감상에서 전쟁의 공포와 잔혹 때문에, 또는 그 파괴와 상흔 때문에 전쟁을 싫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것은 실은 근본적으로 일종의 “행복주의적이며, 공리주의적인 감상과 유물주의적인 소산”일 것이며 “일종의 실천적 유물론이며, 천박한 감상일 것이다.” (비오 12세, 1948. 12. 24)

⑥ “공격자에 대해서 무력을 가지고 자기를 방위하는 것이 윤리

적으로 허용되는가, 혹은 일정한 구체적 상황에서는 의무마저 있는가”하는 문제는 비록 전쟁에 기인하는 고난과 재해만을 고려하거나 전비와 전리를 면밀히 산출해서는 결정할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상당하게 근거있는 성과의 확률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비오 12세, 1948. 12. 24)

⑦ 현대 무기를 사용하는 전쟁(ABC전쟁)<sup>29)</sup>은 엄청나고 감당할 수 없는 파괴를 초래하고 정당 방위의 한계를 훨씬 초월하기 때문에 전쟁 문제를 온전히 새롭고 치밀한 태도로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공의회는 근대의 여러 교황이 이미 발언한 바와같이 전면 전쟁의 단죄는 재확인해야 한다면서 “전 도시나 광범한 지역과 그 주민들을 무차별하게 절멸할 것을 목표로 하는 모든 전쟁 행위는 하나님과 인간을 거역하는 범죄이므로 단호히 배척해야 한다”(사목헌장 80). 이와 같은 뜻에서 비오 12세는 1954년 9월 30일에 원자적, 생물학적, 화학적인 전쟁(ABC전쟁)의 허용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같이 말했다. “만일 이러한 수단 방법의 동원이 인간으로는 전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한 재해를 초래한다면 그 수단 방법의 적용은 부도덕한 것으로 비난받지 않으면 안된다.”

⑧ 비록 많은 사람들이 무력 증강을 “국제간에 어느 정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지만 군비 경쟁은 인류에게 매우 중대한 위협이 되며 군비 경쟁에 소비되는 엄청난 비용을 볼 때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견딜 수 없도록 해치는 일이다.(사목헌장 81)

⑨ “모든 국가의 안전과 정의의 준수와 권리의 존중”을 보상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권한을 언제나 행사할 수 있고 “모든 국가가 인정하는 국제적 공권”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름이 끼

29) A: Atomic, B: Biological, C: Chemical 원자전쟁, 생물전쟁, 화학전쟁, CBR: Radial 방사선을 뜻한다.

치는 죽음의 적막” 외에는 다른 평화가 없는 암흑의 시기가 인류를 위협할 것이다.(사목헌장 82)

⑩ 현대의 전쟁 문제가 지니는 이와 같은 복잡성에 직면하여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지 않을 수 없다는 확고한 주관적 신념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이와같이 종교적인 이유에 의한 병역 거부를 국가는—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는 입장에서—법률적으로 용인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다(사목헌장 79). 또 한편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군인으로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은 스스로 국민들의 안전과 자유를 위한 공복으로 생각할 것이며 이 임무를 바로 수행하는 동안은 참으로 평화의 정착에 이바지하는 것이다.”<sup>30)</sup>

이상에서 보듯이 천주교의 의로운 전쟁론은 평화에 대한 정의의 제시와 전쟁의 제한된 억제와 전면 전쟁의 단죄, 원자 무기를 금하며 과학 무기 사용 금지와 국제적 공권 등 시대에 따른 의로운 전쟁을 위한 이론 제시와 해석 및 적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왔다는 점에서 자체 내에서 변화를 가져왔고 어떤 의미에서 개조되었다.

반면에 전쟁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광범위한 의견 차이 앞에서, 또는 현대 사회의 복잡성 때문에 전쟁에 관하여 일어난 예리한 관심 앞에서 칼빈주의자의 태도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 것인가? 전쟁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지도하는 원리들을 발견하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할 때에 우리는 당장 딜레마에 직면한다. 곧 전쟁에 관한 많은 성구 중, 어떤 것들은 전쟁에 찬성하고 또 다른 것들은 전쟁을 심히 반대한다. 그러므로 주전론자나 반전론자가 다 같이 성경에 근거하여 말하더라도 이상히 여길 것이 없다.<sup>31)</sup>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호소함

30) Ibid., pp. 246 - 247.

31) Henry Meeter, *Calvinism*, 박 윤선, 김진홍(공역)(서울: 한국개혁주의선행협회, 1978), p. 169.

으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한다.<sup>32)</sup> 구약의 윤리는 전쟁을 시인하였지만 신약의 윤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학설로도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개혁주의적 신앙에 의하면 성경 전체를 통하여 시종일관한 유일한 윤리가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sup>33)</sup>

전쟁의 의미에 관해 성경으로부터 이끌어 내질 수 있는 최소한의 다섯 가지 주장이 있다.

① 전쟁은 죄로 인한 하나의 악이다(약 4:1; 창 6:11). 전쟁의 죄악스런 원인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성의 자량이다.

② 전쟁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다. (롬 1:18; 렘 12:1, 2; 시 73:11; 사 10:5, 6, 7, 12, 16)

③ 전쟁은 회개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요청이다. (사 26:9; 마 6:33; 롬 14:17; 딤후 1:17; 고후 7:14)

④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완성은 전쟁에 의해 진작되어지고 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목적의 필ipp이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하늘과 땅에서의 모든 권위가 그리스도께 위임되어져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시 2:6-8; 마 28:18; 시 94:3; 79:1; 빌 1:12; 계 7:14; 숙 4:9)

⑤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을 입증해 주고 있다(시 2:2, 3; 83:4; 99:1, 2; 46:10; 98:9; 사 2:10, 11).<sup>34)</sup> 전쟁 사건을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으로 본 점에서 특기할 만하며 동의한다.

전쟁에 대한 신자의 의무는 언제나 중대한 관심사이다. 전쟁에 대한 기독교인의 첫째 의무(사실상 가장 중대한 의무)는 전쟁이 생기기 전인 평화시의 행동에 관한 것이다.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 확실히 신자의 의무이다. 한 온스의 예방은 항상 한 파운드의 치료보다

32) J. Douma, *Christian Morals and Ethics*, p. 24.

33) Meeter, op. cit., p. 176.

34) Murray, op. cit., pp. 346 - 354.

귀하다. 전쟁을 방지하는 가장 유력한 무기는 바로 신자의 복음에 있다.<sup>35)</sup> 전쟁 방지에 그리스도인은 친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사용하는 십자가의 용병이 되어야 한다. 그보다도 한층 더 가치있는 것은 그가 친히 자기 생활 전체에서 자기의 가슴 속에 필히 전쟁 정신을 진압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보다 더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sup>36)</sup> 신자는 그리스도의 모든 권위를 가르치며 복음을 통하여 기독교 정신을 보급시킴으로 전쟁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국가에서 일단 선전 포고를 할 때엔 역시 신자로서 할 의무가 있다. 이 자기 의무를 바로 결정하기 위하여 기억해야 할 사실은 첫째로 하나님을 위하여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여야 하므로 시민은 정부에 순종할 의무를 가졌다는 일반적 원리를 기억함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정부에 순종할 것인가 혹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결정하는 것은 그같은 시민의 권한에 있지 않다. 둘째로 국민에 대한 정부의 권위가 절대적이 아니고 일정한 제한을 가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가정, 교회, 혹은 인류 사회에 속하는 기타 어떠한 부분든지 합법적으로 속해 있는 것 외에는 무엇이 나 간섭할 수 없다. 정부의 권위는 그 자체의 부분, 곧 행정상의 문제에 제한되어 있다. 더욱 정신계에 있어서, 정부는 인간의 양심 문제에는 간섭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세제는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요 개인 국민의 의무는 아니라는 것이다. 전쟁은, 어떤 생활 부문에 있어서나 하나님께 순종하여야 한다는 양심 문제에 관련된 것인 만큼, 그리스도인은 참전하게 될 가능성 있는 자기 개인 문제에 한 제한하여 생각할 것이 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전쟁이 자기로서 양심적으로 참전할 수 있는 정당한 전쟁인지를 생각하여

35) Meeter, op. cit., p. 187.

36) Ibid., p. 187.

해결함이다.<sup>37)</sup> 근대의 전쟁의 정당성을 결정하는 데 곤란을 느끼고 국민 개인이 선전 포고 당시에 전쟁의 정당성을 결정하기란 심히 곤란한 일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에게는 전쟁의 정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할 증거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정부의 처분을 위반하여 그 전쟁이 부정당한 것으로 결정한 경우엔, 그렇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신자가 그 전쟁을 부정당한 것으로 결정하고 전쟁에 참가하는 것이 하나님께 범죄할 것으로 생각될 때는 정부보다 높은 권위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미에서 자기를 다스릴 권위를 가진 정부에게 순종하기를 양심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sup>38)</sup> 그러나 실제 전쟁은 규칙에 의해 운영되는 경기가 아니라 전쟁이 끝난 후 단지 적절한 규례에 의해 승리 국가가 패전 국가 전쟁 범죄의 전범자들을 처리한다. 맹목적으로 '의로운 전쟁' (the just war) 이론을 비평주의적으로 말하려 함이 아니라 의로운 전쟁의 이론은 전쟁의 어떤 행위에 대한 규범이 주어진다. 그것은 인간 존엄성을 찾아볼 수 없는 폭력, 파괴, 약탈, 큰 규모의 피난, 대량 학살, 그리고 복수와 보복적 강탈이 엄격히 배제된 행위적 규범의 의미를 지닌 것이다.<sup>39)</sup> 대표적인 의로운 전쟁론자인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인 Paul Ramsey는 그의 「전쟁과 그리스도교인의 양심」이란 책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의 명령에 관한 성취로써 의로운 전쟁의 사상에 대한 재강조를 옹호한다. 그의 사상은 다음 3가지 요점이 기초가 된다. 첫째, 의로운 전쟁 이론은 보다 넓은 정치적·사회적 상황에서 형제 사랑을 이해한다. 둘째는 의로운 전쟁의 행동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리이다. 셋째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시민으로서 국가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의로운 전쟁은 방어의 견지

37) Ibid., pp. 188 - 189.

38) Ibid., p. 189.

39) Peter C. Craigie, *The problem of War in the old Testament*. pp. 98-100.

에서 나타난다. 사랑이 그 동기이다. 전쟁 동안 살인(침략과 억압에 대항하는 방어)은 정당한 목적이 수반되고 그리고 살인 행위가 이 목적에 조화된다면 정당하다. Ramsey는 수많은 시민들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핵 전면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무제한 전쟁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핵 전면 전쟁의 가능성은 의로운 전쟁의 개념을 무색하게 (undercuts) 하기 때문이다.<sup>40)</sup>

#### 4. 핵전쟁의 윤리성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헨리 키신저는 그의 저서에서 "우리 세대는 신의 불을 훔치는 데 성공했고 그 결과 공포에 떨며 살아가도록 심판이 내려졌다"고 핵시대의 고민을 프로메테우스 (Prometheus)의 신화에 비유했다.<sup>41)</sup> 전쟁 기술의 고도화, 파괴력의 증대, 세계의 단일화 등으로 전쟁의 성격은 그 모습을 변모시키고 있으며 전쟁론에도 일대 변혁이 일어나고 말았다. 전쟁은 필요악에서 절대악으로 바뀌고 말았다.<sup>42)</sup> 전쟁 성격의 변모, 전쟁의 사회적 기능의 역전은 역사 속으로 절대성이 들어오면서 생활 전반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가치의 전도와 전반적인 역할의 역전을 초래하고 있는 대전환의 일환 현상의 한 측면에 불과하다. 그런데 현실은 하루 아침에 전쟁을 그만둘 수도 없고 군비 경쟁을 중단할 수도 없다는 진퇴유곡이 오늘의 48억 인구를 극도의 심리적 긴장 속에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상징적 불멸성을 지닌 핵무기의 실제적인 사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존재만으로 삶과

40) William J. Krutza & Philip P. Di cicco, *Facing the Issues* 4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1), pp. 12 - 15.

41) Henry A. Kissinger, *Nuclear Weapons and Foreign policy* (New York: Harpers, for the council an Foreign Relations, 1957), p. 65. 구 영록, op. cit., p. 148 에서 재인용

42) 강 기철, op. cit., p. 207.

죽음에 대한 인식에 거대한 위협을 야기시키고 있다. 인간이 자신이 만든 도구에 의하여 스스로 완전히 전멸될 수 있다는 실제적인 가능성 앞에서 오이디프스적인 고뇌에 빠져들게 되었다. 핵무기는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시키는 하나님의 창조에 도전하도록 유도하였고 인간 전능(humanomnipotence)의 교만을 추켜 세우는 죄를 더하고 있는 것이다.

전쟁 윤리에 관한 전통적인 그리스도교의 입장을 평가할 때 우리의 전통적인 그리스도교가 처음부터 부딪혀 온 대결 상황이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현대 과학 기술의 발전과 전쟁의 비인간화는 점진적으로 종교적인 입장이 설 자리를 빼앗았고 선택의 범위를 좁혀 왔다. 지금은 두 초강대국이 완전히 지구를 없애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서로를 무력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대결하고 있다. 우리는 핵무기에 대항할 아무런 군사적 방어 능력이 없다. 전문가들도 대륙간 유도탄(ICBM)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으며 소수의 수소 폭탄만으로도 충분히 지구의 대도시를 잿더미로 만들 수 있다는 데 거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sup>43)</sup> 모든 새로운 공격 무기는 새로운 방어 무기를 고안해 내게 하며 또 새로운 방어 무기가 고안된다 하여도 늘 새로운 공격 무기가 등장하기 마련이다.<sup>44)</sup> 중성자탄 그리고 미국이 개발 추진하고 있는 우주 방위 계획인 스타워즈(별들의 전쟁) 계획이 그렇다. 인간이 자신의 육체와 능력을 확대시켜 나감에 따라서 도구는 인간 자신의 이미지를 새롭게 부여해 왔다. 20세기 문명에 있어서 과학 기술의 중요성 및 그 중심적 위치가 이러한 경향을 더욱 고조시켜 이 세계를 심각하게 변형시킨 도구와 과학 기술의 측면에서 인간의 삶을 규정하려고 한다.<sup>45)</sup>

43) Bainton, op. cit., p. 309.

44) Ibid.

45) Lifton & Olson, op. cit., p. 142.

핵주의는 우리 인간을 핵무기를 사용하는 쪽으로 몰아세우고 있지만 한편 그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핵무기가 불러 일으킨 제문제에 대한 인간의 대체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점이다.<sup>46)</sup> 핵무기에 의해 제기되는 가장 궁극적인 최후의 위협은 비단 그것이 불러 올 전면적인 죽음만은 아니다. 중요한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의미(또는 무상)라는 것이다. 상상할 수도 없는 한 무기에 의해서 이유도 알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다. 가장 잔인하고 참혹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모든 형태의 인간적 연관관계가 알 수도 없는 비합리적인 종말 앞에 갑작스런 최후를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도무지 뜻없고 무의미하다는 느낌으로부터 우러나온 불안감인 것이다. 이러한 사태에서 소위 문화적 삶이란 더욱 더 형식을 잃어버리는 무정형에 빠지고 떠다니게 된다.<sup>47)</sup> 핵전쟁은 소수의 사람만의 의견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핵전쟁의 가능한 형태, 즉 핵전쟁의 발발 가능성 이유로 Herman Kahn은 이렇게 제시한다.

첫째, 오보, 독단적 예측, 일방적 행동, 기술적 및 인간의 실책 등으로 특정지워지는 우발 전쟁(Accidental War)이다.

둘째, 합리성의 부조리—예컨대 닭싸움(Game of Chicken)과 적의 자극적 행동을 억제하는 경우—에 의한 전쟁이다.

세째, 타산에 의한 전쟁(War by Calculation)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저지하기 위한 전략적 억제의 경우에서 예방 전쟁(Preventive War), 선제 전쟁(Premptive War), 세계 정복 등의 동기에서 발발하는 의도적 전쟁 형태를 지칭한다.

네째, 에스칼레이션<sup>48)</sup>은 가능성이 낮은 것이지만 발생할 위험은

46) Ibid., pp. 146 - 147.

47) Ibid., p. 153.

48) escalatio : 단계적 확대전쟁

항상 존재한다.

다섯째, 촉매에 의한 전쟁 (Catalytic War)은 야심적이거나 절망에 빠진 제3국의 촉매 작용에 의하여 유발되는 전쟁을 의미한다.<sup>49)</sup>

핵전쟁은 정당 방위 (self-Defense)의 입장을 뛰어 넘게 한다. 오히려 핵전쟁은 방어 전쟁의 위협을 더하여 준다. 소위 전쟁 논리(logic of war)는 어떤 전쟁이라 할지라도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고 방어 전쟁으로 입증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다. 방어 전쟁이란 어떤 위협이 저질러졌거나 기도되었거나 아니면 그같은 공포를 느낄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시도된 전쟁을 말한다. 자기 방어를 위해서 개인이나 민족이나 자기 방위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리이다. 이런 신성불가침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할 때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힘으로 대결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처음에는 방어하다가 결국 공격전으로 나가게 되고 때로는 위협을 느낄 때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방어를 위한 전쟁은 허용하신다. 문제는 저마다 자체 방위를 한다고 할 때에 어느 것이 진정 옳으냐에 있다. 그것은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양심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 또 어떤 국가나 나라의 권익이나 재산을 사소하게 침해했을 경우 그것이 처음에는 비록 사소하나 국가 전체가 전멸될 우려를 느낄 수도 있으므로 미리 손을 써야 한다.<sup>50)</sup>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Si vis Pacem para Bellum)는 Charles Summer의 말은 이 시대에 상식으로 여겨지고 있다.<sup>51)</sup>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핵주의 시대에 구원을 선포할 수 없다면 이는 핵주의 이전 시대에서도 복음이 될 수 없다. 그러나 핵주의, 핵전쟁의 결론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라고 한다면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마 24:35)는 핵전쟁의 윤리성에 대한 기

49) 구 영록, op. cit., pp. 162 - 167

50) 김 문제, 「십계명과 십자가」(서울: 세일출판사, 1970), p. 278.

51) Marine, op. cit., p. 200.

독교적 이해의 서장인 동시에 결론이다.

## 5. 결론

오늘날은 모든 사람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군인이다. 모든 사람이 전쟁이 요구하는 고통과 행동에 가담하고 있다는 말이다. 모든 국가들이 그리고 그 나라들의 모든 국민들이 군사적인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또 이제는 그같은 군사적인 책임을 조국이니 국민이니 하는 집합적인 단체에 전가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일 수밖에 없다. 각 개인 그 자체가 조국이요, 국민이요, 국가이다. 각 개인은 교전 당사자이다. 그 개인은 전쟁이 발발할 때 행동해야 하며 각 개인은 그 전쟁이 정당한 것인가 아니면 부당한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오늘날의 전쟁의 문제가 윤리적으로 이렇듯 심각해진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책임을 지지 않은 방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환상이다”<sup>52)</sup>라는 입장에 서게 될 때 기독교 윤리의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오늘날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윤리적 결단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sup>53)</sup>

전쟁의 위협은 모든 결정권을 가진 자의 정신에 달려 있다. 공격적 전투와 방어적 전투와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 동시에 전쟁 이론에 입각한 절대 전쟁과 현실 전쟁은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다. 전쟁이 정치의 도구로 가볍게 취급될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또한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서로를 덜 중요할지 모른다. 더우기 적을 다만 하나의 표적으로만 생각하는 비인간화 앞에 서도 태연한 확인 맞은 양심의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세계 각국의 국방 예산은 만족을 모르는 상승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오늘날 가장 더러운 악은 소위 평화니 민족주의니 정의니 평등이니 하는 이름

52) Karl Barth, *Church Dogmatics*, pp. 450 - 457.

53) 고 재식, op. cit., p. 309.

안에서 감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가장 공공연한 불의는 공산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반공산주의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다.<sup>54)</sup> 정의가 없는 곳엔 거짓 평화만이 가능하다. 어거스틴도 “정의 없는 국가는 큰 도둑놈의 소굴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혹평하였다. 즉 탄압에 기반을 둔 억압자들의 거짓 안전 또는 두려움에 기반을 둔 억눌린 자의 무기력함이지 진정한 평화는 아닌 것이다. 또한 그것은 공동묘지, 정치범 수용소, 군인 점령하의 나라에서의 평화이지 진정한 지속적인 평화가 아니다.<sup>55)</sup> 전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는 이 최악 세상에서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도 정의가 확보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의로운 전쟁론의 첫째 규정은 전쟁이 국가의 후원하에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론이 혁명에 적용될 때 큰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Helmut Thielicke 교수는 핵의 경우에 공격과 방어가 모두 거의 동일한 힘을 지녀 점점 자기 파멸과 동일하게 된다면, 의로운 전쟁의 전체 개념은 불합리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sup>56)</sup> 현대 전쟁에 관심을 기울일 때 우리는 가장 중대한 윤리적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그것은 전쟁이 기술과학적으로 더 발전될수록 도덕적 판단력이 더욱 타락하기 때문이다. 의로운 전쟁 규약은 비전투 요원에 대한 자비를 요청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어린 아이들조차 전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어린이는 전쟁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 현대 전쟁은 그런 모든 구별을 철폐시킨다. 그런 점에서 현대 전쟁이 의로운 전쟁 규약에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타협할 수 없는 기독교의 전통적인 윤리적 입장은 전쟁이 의롭기 위

54) Walter G. Muelder, *Foundations of the Responsible Society*, 장 병일(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6), p. 332.

55) Bainton, op. cit., p. 328.

56) Thielicke, op. cit., p. 474.

해서 사랑의 정신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런 전쟁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있을 수 있는지 하는 것이다. 물론 그런 전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의무와 죄책감이 결합된 내적으로 고독한 영혼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 의로운 전쟁의 필요요건 중의 하나는 전쟁이 한편에서만이라도 의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건을 결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핵전쟁이 정의의 개념을 수반할 수 있을지의 난관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현대 전쟁은 비현실적이고 거짓된 분위기에서만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sup>57)</sup> 핵무기 사용의 비도덕성을 지적함으로써 강한 인상을 준 포드 신부는 무신론자의 통치에 굴복하느냐 아니면 인류의 멸망이나 하는 두 가지 대안이 제시된다면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의 도덕적 명령을 포기하기보다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맡겨야 할 것이라고 결론내렸다.<sup>58)</sup>

만일 정부 당국이 그리스도인에게 대량 학살을 위한 핵전쟁 준비에 동참하도록 명령한다면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대답은, 국가에 대한 백지 위임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비록 모든 사람이 찬성한다 해도 나는 거부한다”(Si omnes ego, non)는 답변일 것이다.

밀리타리즘(militarism)의 귀결이 자살성이라는 것은 전쟁광으로 타락하는 나라마다 몰록(유아의 인신제물을 요구하는 가나안·페니키아 지방의 전쟁신, 오늘에 와서는 대포밥을 요구하는 국가 권력의 숭배

57) Nicholas Spykman, *America's Strategy in World Politics* (New York: Harcourt, Brace and Company, 1942), p. 37. Bainton, p. 313에서 재인용.

58) *Theology Digest* (winter, 1977), p. 9. cf: Francis M. Stratman, *War and Christianity Today* (Westminster, Md: New man press, 1956). Charles S. Thompson, ed., *Morals and Missiles* (London, 1959) Bainton, p. 357에서 재인용.

를 의미한다)으로 화하여 자기 보혈을 파괴 한다는 수없이 반복된 역사적 예증에서 명백해졌으며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과 독일을 파국으로 몰고 간 양국의 군국주의는 또 한 번 이 냉엄한 사실을 실증했던 것이다.

구약에서 예언자들의 멸망의 음울한 메시지 후에는 반드시 남은 자 사상이 뒤따라 나왔던 계시 역사의 전개 과정에서 기독교의 진리는 파국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소망의 그루터기를 남긴다(사 6:13; 9:11-15; 3:18-21; 호 14:4-8). 이 그루터기는 핵무기의 파괴성, 무의미성, 자살성을 뛰어 넘는다(미 4:3,4; 사 2:4). 의로운 전쟁론의 적용 방법은 핵전쟁 시대에서 수정과 재해석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의로운 전쟁론의 정신은 가능한 한 준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의로운 전쟁론은 효과적인 전쟁론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전쟁 윤리에 더 치중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윤리 신학은 과거에 대부분 정당한 전쟁의 조건을 따지는 데만 골몰하고, 평화에 관한 교리는 별로 추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핵무기의 가공할 파괴력을 겁내어, 어떤 항구적인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전제 조건들을 모색하며 토론하고 있는 시대인 것 같다는 비판은 새겨 두어야 한다. 전쟁을 방지하는 것은 확실히 신자의 의무이다.<sup>59)</sup> 우리는 인간의 파괴적인 무한한 능력을 행사하는 전쟁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쟁의 문제를 이해함이 없이 이 세대에서 책임있게 살 수 없다. 의로운 전쟁의 입장은 국제적 정치 생명체의 현실성을 진지하게 다루지만 그 반대 입장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행동 원리를 잃어버린 상태, 즉 세속화된 이론이라고 단정한다.<sup>60)</sup> 뿐만 아니라 폭력 사용의 정의(justice)도 일정한 환경에 의존한다는 극단적인 오해도 나타난

59) Meeter, op. cit., p. 185-186.

60) Craigie, op. cit., pp. 109-110.

다. 그러나 한 국가에 있어서 보다 충실한 군사 준비 태세는 다른 국가가 그 국가에게 군사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무장된 평화와 전쟁의 예방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물론 무장된 평화는 예방적 가치를 가진다. 이는 잠재적인 방어인 것이다.<sup>61)</sup>

평화는 단순한 슬로건(Slogan)으로, 전략적인 약속이나 협정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핵무기는 핵전쟁이 아니라 핵평화(Nuclear Peace)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장된 평화(Armed Peace)는 의로운 전쟁 이론의 정당 방위(legal defense)를 가능하게 하는 시대를 초월한 불문률(Unwritten Law)인 것이다. 평화에의 의지가 없이는 전쟁을 제거하기 위해 숙고된 모든 정책이 쓸모없이 될 것이다. 평화에 대한 욕구는 보편적이지만 평화에의 의지는 그렇지 않다.<sup>62)</sup>

인간은 전쟁에만 에너지를 쏟고 있다. 사람들은 핵무기 개발을 윤리적으로 반대하면서 끊임없이 핵무기 개발을 진척시키고 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핵전쟁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기술 능력만 있다면 어느 나라든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노력한다. 누구나가 다 그것이 미친 짓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모두 다 달아날 구실을 대고 있다.<sup>63)</sup>

핵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핵재난의 잠재적 위험과 소규모의 지역 전쟁의 공포를 가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지구상의 마지막 전쟁에서 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한 한 가지 무거운 짐은 현대 전쟁, 화학전, 그리고 핵전쟁의 규모를 잘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위한 작업, 즉 큰 뜻을 추구하여야 한

61) Thielicke, op. cit., p. 466.

62) Bainton, op. cit., p. 346.

63) Karl Sagan, *Comos*, 신옥희, 노홍열, 정대현 (공역) (서울: 이대출판부, 1982), pp. 91-92.



다.<sup>64)</sup> 아인쉬타인은 “전쟁은 소아병”이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화평케 하는 자(peace-maker)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 5:9)

한 마디로 의로운 전쟁 이론은 평화를 만드는 의지가 극대화된, 전쟁 정신을 진압하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삼상 17:47) 전쟁 행위의 뜻을 조직적으로 정립한 전쟁 방지 이론인 것이다.

64) Craigie, op. cit., p. 18.

## 교회 행정에 있어서의 효율적 조직 관리(II)

박 차 상

### 서 론

한국 기독교 선교 2세기를 향한 시점에 서서, 지난 100년간을 돌이키며 결산하는 데 있어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교회 행정의 부재(不在)였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많은 인원과 재정을, 그리고 좋은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교회 행정의 3부분 - 인사 행정, 재무 행정, 조직 관리 행정 - 가운데 조직 관리 행정면을 서술하려고 한다.

### 교회 행정의 개념